



‘동굴 사우팅’…마성의 드라큘라가 돌아왔다

어두침침하고 음습한 체코 원작
화려한 영상의 한국 버전 재탄생
13년만의 드라큘라 역 연기 절정

보기만 해도 비호감인 송곳니를 멀쩡한 사람들의 목에 박아 넣어 피를 빨고, 수백 마리 박쥐(역시 비호감)가 되어 몰려다니는가 하면,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가 두 팔을 가슴 앞에 포개 채 잠을 청하는 인간, 아니 괴물.

“도대체 이런 캐릭터가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야?”하면서 또 슬금슬금 뮤지컬 ‘드라큘라’가 공연 중인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로 향해버렸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신성우의 드라큘라가 보고 싶었다. 신성우는 1998년 국내 초연 때 드라큘라를 맡았는데, 이것이 그의 뮤지컬 데뷔작이었다. 평소 이 작품과 배역에 대한 그의 애정이 각별함을 알고 있었기에 “이건 꼭 봐야 해”하고 나의 무의식에 꼭꼭 눌러 써놔던 모양이다.

신성우의 ‘드라큘라’는 체코 뮤지컬이다. 김준수가 드라큘라로 출연해 ‘사육’로 유명했던 ‘드라큘라’는 미국 브로드웨이 버전으로 이 작품과는 원작만 다를 뿐 음악도 대본도 무대도 다르다.

체코는 알려져 있듯 클래식 음악 강국. 드보르작, 야나체크 같은 작곡가가 체코 출신이고 라파엘 쿠벨리크, 바츨라프 노이만, 이리 벨로홀라베크 같은 명지휘자들도 있다. 그래서일까. 체코 버전 드라큘라는 원래 매우 클래식한 작품이라고 한다. 초연 때는 뮤지컬 배우가 아닌 오페라 가수들이 출연했을 정도라고.

하지만 이번 ‘드라큘라’는 곳곳에 수정을 가해 지극히 한국적인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대표적으로 무대다. 체코 원작이 어두침침하고 음습한 분위기였다면



신성우(왼쪽)와 아드리아나로 분한 권민제.

한국 버전은 예쁘게 느껴질 정도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영상이 대거 사용되었는데, 오프닝의 영상을 보면서부터 ‘혹’ 빠져들었다. 드라큘라의 분신인 박쥐 떼가 우르르 날아 한 지점에 모여들면 드라큘라가 ‘짹’하고 등장하는데 영상과 실사의 기막힌 조화에 탄성이 목구멍을 열고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신성우 드라큘라 얘기를 해보자. 과연 ‘전설’ 소리를 들을 만한 존재감이다. 무대 위에 세워 놓으면 그냥 드라큘라라는 느낌이다.

신성우는 로커답게 소리의 개성이 엄청 강한 배우인데 이 작품, 이 캐릭터에는 제대로 꽂혔다. 동굴 깊은 어둠 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한 거칠고 묵직한 소리. 1막 마지막, 드라큘라의 포효는 “나는 전설이다”를 외치는 것 같았다. 슬픔과 분노, 원망, 배신, 복수, 좌절을 뽐내며 넣은 듯한 야수의 사우팅.

반월성 역의 문종원은 이글거리는 분노를 잘 드러내는 배우다. 사악하고 밀지만 객석에서조차 저항하기 힘든 공포와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 전작인 ‘벤하’의 ‘매켈라’와는 또 다른 결이다.

드라큘라의 연인 아드리아나는 권민제(선우)가 맡았다. 가수 출신이라 노래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연기도 잘 하는 배우다. 그가 연극 ‘신의 아



1998년, 2000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드라큘라 역을 맡았던 ‘전설’ 신성우가 13년 만에 치명적인 매력의 드라큘라로 돌아왔다. 더욱 깊어진 캐릭터 해석과 연기로 전설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신성우.

사진제공 | 메이커스 프로덕션

그네스’에서 아그네스 수녀 역을 연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디미트루를 맡은 ‘미성의 최성원’도 반가웠다.

드라큘라는 400년을 기다려 만난 아내 아드리아나의 결을 떠난다. 아드리아나를 마지막으로 포옹하며 드라큘라는 ‘아드리아나’가 아닌 현생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 장면이 상당히 ‘뜨끈’하다. 예상했지만, 체코 버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PS. 공연이 끝난 후 신성우를 잠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날 공연을 떠올리며 “그 장면에서는 박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박수가 나왔다. 내가 노래를 너무 못 불렀구나 싶다”며 자책을 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전설’은 없다. 마치 장단콩을 로스팅해 만든 아메리카노처럼.

문화 단신

●뮤지컬배우 조정은 콘서트에 김준수 뜬다
(11월 19·20일 오후 8시 |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

뮤지컬배우 조정은의 첫 번째 콘서트 ‘마주하다’의 스페셜 게스트 리스트가 공개됐다. 19일에는 김준수, 이혜경, 최현주, 20일에는 강필석과 박은태가 함께 한다. 김준수는 뮤지컬 ‘드라큘라’에서 조정은과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준 바 있다. 두 배우는 이

작품으로 ‘관객들이 선정한 최고의 남녀 주연’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은태는 뮤지컬 ‘피맛골연가’에서 조정은과 뛰어난 호흡을 자랑했다. 조정은에게는 여자 주연상, 박은태에게는 남자신인상을 안긴 작품이다. 조정은은 이 작품을 통해 ‘선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장애인돌기 제45회 한국 키비탄자선율악회 (11월 13일 오후 7시 |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국제키비탄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건전

한 시민사회를 건설하자는 목적으로 1917년 미국에서 창설된 단체이다.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독일 등 47개 국가에서 클럽이 결성돼 활동 중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강일래 정하은 임일주, 팼페라가수 명성희,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대한민국ROTO합창단, 할미꽃하모니카앙상블이 함께 하며 정상일교수(세한대 실용음악학과)가 지휘를 맡는다. 영음예술기획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양형모 기자

판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수험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 가능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9급공무원 초시생, 시험 준비는 어떻게?

공무원 시험에 처음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초시생들은 방대한 정보로 인해 혼란스럽다. 학원, 인터넷 강의부터 1타 강사, 교재 등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수험생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하기도 한다.

이에 수많은 합격 노하우를 보유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9급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합격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한다.

에듀윌의 ‘9급공무원 합격 교과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모두 제공해 초시생을 위한 맞춤 설계 입문서이다. 어떠한 난이도에도 흔들림 없이 합격 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교재로 초시생들이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 교수진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학습 방법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초 이론과 빈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으며, 생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현재 신청자를 대상으로 22만 원 상당의 합격 교과서 저자의 기초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 초시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이 밖에도 에듀윌은 9급공무원 수험생이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고, 최종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하는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수험생들의 합격 위해 힘쓰고 있다.

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초시생 눈높이에 맞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에듀윌에서 마련한 9급공무원 ‘합격 교과서’는 11월 1일 이후 에듀윌에 신규 가입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문화

15

2019년 11월 8·9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신간



●창덕궁, 왕의 마음을 훔치다 (신희권 저 | 북촌)

건물과 숲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궁궐. 가을을 대표하는 세계유산 창덕궁의 진면목을 여행하듯 돌아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저자 신희권 교수(서울시립대 국사학과)는 창덕궁 관리소장을 지내는 동안 세세하게 살핀 창덕궁의 내밀한 아름다움과 고고학, 역사학을 넘나들며 고증한 창덕궁의 멋과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창덕궁 곳곳에 깃든 사연과 안타까운 일화,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석함을 열어 보이듯 3부 14장으로 소개한다. 창덕궁이 품은 역사적인 장면들을 창덕궁 발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소개하는 대목은 특히 눈여겨볼 만하다.



●오래된 집, 가고 싶은 마을 (이진경 저 | 이가서)

전작 ‘한국의 고택 1·2권’에서 들려주었던 고택 이야기와 새로 방문한 고택 이야기를 소개한다. 저자는 강릉시 문화유산해설사를 거쳐 사단법인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에서 발행한 ‘문화유산신문’ 기자로 7년간 활동했다. 현재는 문화유산답사를 통해 살아 숨쉬는 고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국의 고택을 탐방 중이다. 전국의 고택을 찾아가 그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집만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글과 사진에 담아냈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대대로 살아온 고택에 조금 더 다가와 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 스도쿠정답

9	4	5	6	8	2	7	1	3
6	2	7	8	1	3	9	5	4
1	8	3	9	7	6	2	4	5
4	6	1	2	3	5	9	8	7
5	8	2	9	1	8	6	4	7
8	9	4	7	6	5	1	2	3
2	7	6	5	9	4	8	3	1
3	5	9	1	8	6	7	4	2
7	1	8	2	5	4	7	9	6

■ 스도쿠문제

			4	2				
	4	7			6	5		
	5		7	3		4		
3		1		9		7		8
			8		6			
6		5		2		1		4
	9		6		5		8	
	6	3				4	2	
			2	9				

			3	8		7		
	1			6			5	
4			9		7			8
		8	5		1	6		
5	3						8	1
		1	8		3	4		
1			6		4			2
	4			1			9	
		5		2		1		